

아시아의 도시팽창과 미래의 환경문제

— IFLA 홍콩대회를 마치고 —

金 榮 洙 / 建築士 · 金榮洙建築研究所

전원도시로 서구화된 싱가포르의 市 중심부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이란 것은 너무나 상식화된 이야기다.

지구촌의 존폐를 핵증산보다는 인구폭증에 더 큰 비중과 우려를 두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우기 아직도 선진화에 뒤진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에 있어서 인구의 문제는 더욱 복잡한 난해성과 위기감을 잉태하면서 전전공공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도시의 인구집중율은 가공할 경지를 넘고 있어 환경의 오염도와 주택의 구독난은 인간생활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산위서 또 하늘로 치솟은 아파트 群 가까운 장래 우린 더 심각한 위기

특히 이번의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홍콩대회가 아시아 속에서도 땅이 좁고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린 홍콩을 대표적으로 표현이나 한듯 「아시아의 도시팽창」을 토론의 주제로 삼은 것은 너무나 시의적절한 선택의 현명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동부지역 3차회의에 참석한 12개국 130여명의 조경가와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 가운데 아시아의 도

시팽창 문제가 흥미와 논의의 초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홍콩을 표본처럼 보면서 인구와 도시와 건축 그리고 조경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연구해보자는 공통의 과제를 너무나 당연하고 실감있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IFLA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일본의 「키타무라」씨의 말처럼 “아시아의 여타 대도시들도 가까운 장래에 홍콩보다 더욱 심각한 도시팽창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며 홍콩의 문제를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한 것처럼, 우리의 서울도 이미 때늦은 일이지만 口頭禪에만 그치지 말고 과단성있는 정책적 메시지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껴본 감명깊은 회의였다.

실제로 한정된 홍콩의 땅위에 물밀듯 몰아닥친 流入者들로 기존의 집은 전부 스럼화되어 거주용소와도 같이 폐허화하고 모든 사회악과 범죄의 하렘가처럼 변했거나 진행 중인 반면에, 새로이 찾은 집들은 산꼭대기도 모르고 다시 하늘로 치솟는 초고층 아파트들 밖에 없음을 볼 때에 방치될 지도 모를 서울의 내일을 연상하는 일은 정말 괴롭고 답답한 마음임을 여찌 하라.

이번 회의의 테마설정에 대한 배경은 홍콩조경그룹의 「이안 린」 회장의 말처럼 “구룡반도를 한번 둘러 본 사

람이면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듯이, 참석자들의 모두에게 자국의 도시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샤틴 뉴타운은 계획도시의 샘플 산을 깎고 바다를 매우는 신념

그렇다고 홍콩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도시민을 위한 환경의 개선과 지역 재개발을 서두르면서 끊임없이 산과 바다를 새도시로 바꾸어 가는 집념과 노력 또한 팔목할만 하다.

토론 후의 테크니컬·투어로 「샤틴(沙田)뉴타운」을 둘러 보면서 관계관들의 브리핑도 들어 보았지만 沙田海를 매립하면서 이상적 커뮤니티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개발 중인 계획도시로서는 가장 훌륭한 모범적 타운으로 생각되었다.

獅子山の 자연림을 비롯한 여러 산을 「칸추리 파크」로 둘러 치고 바다로 이어지는 城河江을 운하로 연결하는 兩岸을 도시시설의 중심지구로 계획개발하는 修景의 아름다움 또한 감탄적인 것이었다.

동양의 「호놀룰루」나 「비냐 델마르」(칠레의 아름다운 해변 휴양도시)라고나 할까.

개발이 진행 중이라 아직은 운하를



山頂에서 다시 하늘로 솟아오른 하이라이스 아파트群(홍콩)

따라 植樹를 위시한 조경과 중앙공원을 비롯한 중심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상의 遠近圖를 그리며 비교를 해 봄직도 하다.

馬鞍山 일부의 개발여지를 포함한 3700헥타에 8십만명의 인구를 수용 목표로 하면서, 80년대 말까지는 주거·판매·고용을 위시한 교육과 복지시설을 완료하고 均衡과 繁盛의 신시역을 달성하려는 건설의 현장이 전개된 곳이었다.

운명의 해인 중공과의 조차 기간이 14년 정도 남았지만 그때까지는 샬틴의 뉴타운이 완성된다는 아이러니칼한 시한도 재미있지만, 또 다른 많은 신개척지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면 홍콩의 장래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시아 제도시의 환경문제 검토 조경가의 역할 새삼 강조되고

이번 토론에서는 주로 홍콩의 최근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조경가들의 사례 발표가 많았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가들의 파넬작품들이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진열되었다.

특히 홍콩지역의 공공휴게시설(로저 폴라드·홍콩정원담당관), 뉴타운 개발배경(찰스·사운드스)과 造景事業(케네드커크브라이트·홍콩정청조경담당관), 그리고 홍콩의 외곽개

발의 接近方法(던칸 토마스·우르비스 설계그룹)과 칸추리 파크의 조경(존 헤이우드·공원담당관) 등 주로 홍콩에의 개발과 조경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거론되었다.

여기에서가 홍콩과 비교적으로 다루어진 타도시의 환경과 조경 문제를 요약해 보면, 싱가포르 도시화의 환경적 동일성(시우 림·싱가폴 윌리엄 사무소의 파트너), 마닐라 市界부락의 조경과 농업(호라치오 디만링·마닐라 건축대학 강사), 뉴질랜드의 도시개발과 조경가의 역할(디안 멘지스·뉴질랜드 조경가 협회장·女), 일본의 도시팽창과 녹지공간의 확보(하지메 고시미쥬·메이지 대학 조교수), 중국의 전통적 사상과 조경계획(순 지아옥장·중공 베이징 대학 조원과 교수) 등 여러가지였다.

이 외에도 뉴델리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조경관계를 건축가 출신인 델리대학의 「바안」 교수가 역시 인도사람인 「치탈레」씨와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발표자였던 일본인 교수의 히어링 부족 및 답변불능 사태가 웃음 속에서 사회자의 기지로 넘기는 등 기록할만한 해프닝도 없지 않았다.

회의용어가 영어 하나인데서 오는 불편의 감수는 비영어권의 대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공통의 운명 같기도 했지만 IFLA도 영국의 연방국들이

주도하는 국제모임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새삼 영어의 위력을 실감하기도 했다.

田園도시 싱가포르도 西歐化엔 비난 人間과 自然, 傳統과 創造의 均衡을

3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회의가 아시아를 중심한 대도시의 주거환경과 도시계획 그리고 修景造園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성과와 과제의 토론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는 성공적인 국제회의였다고 다들 이구동성이었다.

아시아제국의 도시현실과 미래의 환경을 조감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숙명적 균형과 조화를 재창조하려는 이상의 실현가들처럼 절규와 응변으로 시종된 홍콩 웨라톤호텔의 볼륨이었다.

홍콩을 회생불능의 廢都처럼 성토타다가도 뉴타운의 창조적 의지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이상적인 현대전원도시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 동양의 傳統을 망각한 서구의 복사판이라고 일언지하에 매도해 버리는 대조적 이론들의 난무장이었다.

인도의 계급제도와 생활 관습에서 연유되는 현대화의 거부적 측면도 논의되었고, 중공의 오랜 역사와 짧은 이즘에서 투영되는 새로운 자본화의 동경과 서구개발 방식에 대한 조심스



홍콩의 신개발지인 「샤틴 뉴타운」의 중심개발지역

런 어프로치도 타진해 보았으며, 성공적인 도시계획으로 표현되던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와 캔버라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아직도 잘 보존된 광대한 자연의 인간화 개발구상도 차원높게 연구되고 있음을 들려 주었다.

저개발국이면서도 자만감에 꼭 찬 태국이 70%의 넓은 평야를 여하히 열대수목으로 국토의 이상적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선진국의 도취감에서 열도를 개조하려는 일본은 70%의 많은 산지를 어떻게 세계의 개발모델로 완성시키려고 하는지에 관해서도 깊이있게 다루어졌다.

파푸아 뉴기니아의 원시림에 대한 조경적 차원과 타이완의 보존림에 대한 수경적 계획도 상대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또다른 측면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世界 속에 安住하는 韓国的 도시 공간
서울을 歷史와 田園의 샘플도시로

그러면 도시인구의 팽창과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집중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높은 우리의 환경조건과 주거실태를 잠깐 살펴보자.

간단히 서울을 예로 들어 보면 도시오염과 주택난을 접어 두고라도 우리의 전통적 도시공간과 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준부족, 광장 등 오픈 스페

이스와 공공휴게시설에 대한 인식한 행정, 전반적인 건축과 조경에 대한 시민의 노력상실 등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아직도 세월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일까?

정말 모처럼 갖는 올림픽 등 세계속의 한국을 연출해야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긴급개발방식의 수립이 다급하게나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내년 IFLA 총회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각국 대표자 모임에서 우리의 올림픽 행사와 조경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들을 표명하기도 했고, 나아가 1992년도의 IFLA 한국총회 개최를 「밀러」 현회장으로부터 제안받기도 했으나 먼저 걱정이 앞서움을 억누를 길 없다.

마침 오후영 KOFLA(한국 조경연합회)회장의 불참으로 확답은 다음으로 미루어 놓았지만 서구의 조경가들과 건축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자못 큰 것을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한 전시효과를 떠나서 진정 우리의 도시환경과 조경이상에 대한 참모습과 미래상을 보여 줄 수 있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본다.

낮은 기와집을 헐고 10여층의 빌딩을 짓는 재개발 방법이 우리 도시의 현대화로 착각하고 88년에는 그것을 자랑삼아 보여 주기에 급급한 악화일

로의 도시계획은 하루 빨리 止揚되어야 하겠고, 한국적인 문화와 유산을 마구 헐어 버리고 서구의 아류로 한없이 전락되는 과정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추태는 더이상 묵과해서도 안될 일이다.

도심을 흐르는 천혜의 청계천을 정화하려 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덮어 버리고, 그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꾸려 하지 않고 마구 쓸어 버리고 옮겨 버리는 일, 그리고 모처럼 이전하는 도심 속의 학교에는 재벌빌딩으로 공간을 채우는 지혜는 이번 회의에 제출되었다면 단연 사형감이라.

홍콩의 토지와 개발공사를 관장하는 「잔내경」 장관이 개막식 치사에서 “개발의 필요와 환경의 고려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환경과 건축환경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그리고 전문기사와 조경가 등을 광범위하게 고용하였다”고 말했듯이 행정가가 아닌 전문가의 主導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청되는 해결의 열쇠임을 확신해 본다.

여기에 꼭 첨가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 숨쉬고 생활하는 도시와 자연은 전래의 문화와 미래의 문명이 함께 안주하는 공간이라야 한다는 것이 이번 회의를 다녀 오면서 재삼 창조的基本律로 삼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램이다.